



내 인생 스스로 만들기에 날마다 좋아요

마곡사 화림원 정현 스님



정현 스님은 ...

선화와 '날마다 좋은 날' 운동으로 유명한 스님은 194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1957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전강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남원 실상사 주지를 지낸 후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스님은 LA 오렌지카운티 정혜사 주지, 오래된 포트랜드 보광사 주지, 덴버 용화사 주지, 캘리포니아 금강선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용주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화림원'에서 수행정진 중이다.

정현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 10만 장 회향을 기념해 4월 1일부터 서울 수운회관 다보성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게이션에도 없는 길을 누가 일러준 기억대로 더듬어 산을 올랐다. 찾아가려는 '화림원' 이정표가 없어 가는 동안에도 나그네는 불안했다. 길을 일러준 누가 못미더웠고, 나그네의 희미한 기억이 마땅치 않았다. 백련암 길과 죽림원 갈림길부터 같았다.

"이 길이 맞을까? 죽림원 쪽으로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죽림원 쪽으로 차를 돌렸다. 굽은 비탈길을 올라갔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

나폴레옹이 생각났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험준하게 산을 올라놓고는 "이 산이 아닌가봐"하며 회군시켰다.

돌릴 군대도 없이 차 한 대 뿐이었던 나그네는 계속 달렸다. 길을 알려준 누구를 믿기로 했고, 회미했지만 내 기억을 믿기로 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을 것인가?"

그때였다. 누가 알려준 화림원의 상징, 빛바랜 '날마다 좋은 날' 안내판이 나그네를 반겼다.

"찾았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은 <벽암록> 제6책 공안이다.

중국 운문종을 세운 운문 선사(864-949)가 어느 날 법상(法相)에 올라 제자들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너무 집착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그대로 물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름 전 일은 묻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보름 후 일에 대해 각각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보름 전 일은 묻지 않을 테니 보름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선사의 질문에 제자들은 골 목에는 병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다. 운문 선사가 말했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

하지만 중생의 삶이란 매일이 고달프지 아니한가? 살다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 '날마다 좋은 날'이 적힌 표지를 두고 나그네는 생각했다.

"오즘 세상에는 '날마다 불안한 날(日日是凶日)'이란 말이 맞을 텐데..."

이름 '날마다 좋은 날' 운동을 10년 넘게 펼쳐 온 화림원 정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이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청소부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주부는 열심히 살림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사를 지키며 사는 날들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의 이유는 간단했다. 내 인생(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 맑은 일에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난다는, "공심은데 콩 나고 팔심은데 팥 난다"는 지극히 쉬운 이유였다.

정현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 속에는 행복·기쁨·자유·평화가 있으며, 종교와 인종·사상·이념까지 초월한 말"이라며 "그 날은 '부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신의 날'이지만 아무도 못 만들어 준다. 오직 '나' 만이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입춘이 지났다. 언제 추웠냐는 듯 비가 내린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을 차로 달렸다. 나그네가 운전하는 동안 두어 번 들은 정시뉴스에서는 미국 워싱턴에 1m 가까이 내린 눈소식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이상 고온과 비로 인해 트럭으로 경기장에 눈을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구 반대편인 호주 등 남반구는 섭씨 40도의 폭염에 시달렸다.

때 아닌 멕시코의 겨울폭우와, 미국 로스앤젤리스 주변의 겨울폭풍까지 자연마저도 자연스럽게 못만 세상이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세상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세차하면 다음날은 꼭 비가 온다는 것.

경인년 설을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이른 봄날, '춘마곡추갑사(春麻谷秋甲寺)'의 공주 마곡사를 찾았다.

공주 마곡사는 백제 무왕 41년(640) 자장율사가 창

건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이후 중창했다. 근대에는 백범 김구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마곡사 백련암은 백범이 명성 황후 시해에 분개해 황해도 안악에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세상을 피해 3년간 은둔하며 승려생활을 했던 곳이다.

광복 후 마곡사를 다시 찾은 백범은 "돌아와 세상을 보니 흡사 꿈속의 일과 같구나(却來 觀世間 猶如 夢中事)"라고 말하며, 향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때 백범이 심은 나무는 지금도 대광보전 앞마당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마곡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람의 배치이다. 도랑을 남북으로 나눠 흐르는 태화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부처님 세계인 극락을 상징하는 대웅보전(보물 제 801호)과 대광보전(보물 제802호)이 있다. 남쪽에는

전란 피할 명당 마곡사에는 무수한 암자 있어

자기 위치에서 본분사 지키는 날이 좋은 날

영선전, 매화당, 수선사 등 스님의 수행공간이 자리한다. 태화천으로 걸린 두 곳을 극락교가 이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마곡사는 물의 흐름과 산의 형세가 태극형인 곳에 자리해 <택리지> <경감록> 등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명당으로 꼽혀왔다. 그래서일까?

마곡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람의 배치이다. 도랑을 남북으로 나눠 흐르는 태화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부처님 세계인 극락을 상징하는 대웅보전(보물 제 801호)과 대광보전(보물 제802호)이 있다. 남쪽에는

마곡사 부도밭을 지나 갈매길을 돌고 돌았다. 네비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을 것인가?"

그때였다. 누가 알려준 화림원의 상징, 빛바랜 '날마다 좋은 날' 안내판이 나그네를 반겼다.

"찾았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은 <벽암록> 제6책 공안이다.

중국 운문종을 세운 운문 선사(864-949)가 어느 날 법상(法相)에 올라 제자들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너무 집착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氣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 DC

※ 제품의 특징 ※

영성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성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울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기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수행단체, 심신수련단체

